맥타가트의 시간 역설이 함축하는 문제점* **

한 우 진***

주제분류 형이상학, 논리철학

주 요 어 맥타가트, 시간, 시제, A 이론, B 이론

요 약 문

맥타가트(McTaggart, J. M. E.)는 시간에 대한 두 이론을 제시하고서 각 이론을 비판함에 의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이론은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은 시제가 실재하며, 현재의 사건이 미래에는 과거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B 이론은 시제란 없으며, 사건들 간의 '이전,' '이후,' '동시'와 같은 관계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시간을 부정하기 위한 맥타가트의 논증이 비일관적임을 논증한다. 맥타가트는 먼저 A 이론의 핵심 개념인 '변화'를 통해 B 이론의 시간을 모순으로 몰아간다. 이어서 그는 A 이론의 시간을 비판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거부된 B 이론에 속하는 무시제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비일관성이 발견된다. 그의 논증을 일종의 양도 논법을 통해 재구성했을 경우에도 비일관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때 전체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드러나게 된다.

* 본 연구는 2012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맥타가트 논증의 해석과 재구성에 관해 여러 유익한 지적과 제안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오래전 본 논문의 단초가 되었던 글에 대해 조언을 주었던 지머만(Zimmerman, Dean)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덕성여자대학교

www.kci.go.kr

1. 들어가며

맥타가트(McTaggart, J., 1927)는 시간에 대한 반 실재론을 펼쳤다. 그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간의 역설을 드러내는 두 개의 세부 논증을 내어 놓았다. 두 논증은 시간에 관한 서로 다른 두 이론이 각각 모순을 함축함을 보인다. 시간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과격한 결론은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며, 반 실재론의 허상은 쉽게 드러날 것 같다. 그러나 맥타가트의 시간 역설은 난해하고도 매우 교묘해서 그 문제점을 찾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사이더(Sider, T., 2001)는 맥타가트의 논증이 "미묘한 오류도 포함하지 않으며, 숨어있는 기술적인 실수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214쪽). 브로드(Broad, C. D., 1938)도 "어딘가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77쪽). 지금까지 수많은 형이상학자들이 맥타가트의 역설에 도전해 왔다. 시간 실재론자들은 주로 맥타가트의 각 세부 논증이 전제로 취하는 어느 한 이론을 비판함에 의해 반 실재론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문제점은 한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되는 이론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상대 이론의 근거와 정당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표는 시간을 부정하는 맥타가트의 두 논증을 분석한 후 어느 특정 견해를 가정하지 않은 채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특정 이론과 그 이론의 배경에 자리하는 존재론적 가정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 논의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필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반론을 찾아서 맥타가트의 논증이 함축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2. A 이론 또는 B 이론

시간에 대한 동시대의 논의는 맥타카트의 A 계열(A Series)과 B 계열(B Series)의 구분에서 시작한다. 대다수의 형이상학자들은 이를 따라 A

www.kci.go.kr

이론과 B 이론의 구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시제적 시간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A 이론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제(tense)가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A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어느 A 이론가는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고 말하지만, 과거까지 실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며, 미래가 실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중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는 현재론(presentism)이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과거와 미래의 실재를 말하는 사람도 현재가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여러 A 이론의 변형들 가운데서 추출할 수 있는 공통점은 시제가 실재하며, 따라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하는 동사나 어미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B 이론은 시제에 대한 반 실재론이다. 그래서 이를 ‘무시제적 시간 이론’이라고도 칭한다. 프라이어(Prior, A. N., 1998)는 B 이론을 ‘시간의 태피스트리 견해’라고도 부른다. 이 견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간과 신에 대한 생각에 잘 나타나 있다. 신은 알파요 곧 오메가이다. 그는 모든 시간과 사건을 그 안에 포함한다. 즉, 신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공존한다. 신에게는 천년도 찰나와 같다. 신은 시간의 경과를 경험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서로 얽힌 시간의 태피스트리가 그 안에 존재할 뿐이다. 이때, 실재하는 것은 시제가 아니라 오직 ‘이전,’ ‘이후,’ ‘동시’와 같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25일 오후 7시 36분에 이 논문을 쓰고 있다는 현재 사건은 동년 동월 동일 오후 8시 40분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반대로 퇴근이라는 미래 사건은 논문을 쓰고 있는 현재 사건 ‘이후에’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므로 B 이론가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서로 구분되는 시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가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B 이론은 일반인의 상식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B 이론가들은 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이들은 시제에 실재성을 부여할 경우, 어느 때 참이었던 진술이 나중에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2+3=5”와 같은 진술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이 진술이 미래에 거짓일 수

www.kci.go.kr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또한 한 번 거짓이었던 진술은 영원히 거짓이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논문을 쓰고 있다"는 진술은 바로 이 순간에는 참이지만, 한 시간 후 퇴근길에서는 거짓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B 이론가들은 시제를 나타내는 '이다'(is)와 같은 어미가 현재 시제와 상관이 없으며 특정 시간 t에서 일어난 어느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무시제적 표현이라고 여긴다. 시간 t는 A 이론가들이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는 모든 사건들이 한꺼번에 펼쳐진 태피스트리 중 하나의 공간적 위치를 지시할 뿐이다. 각 위치 사이에는 어떠한 시제적 의미도 없으며, 우리가 '이전,' '이후,' '동시'로 표현하는 관계만이 존재한다.

3. 시간의 역설

맥타가트는 시간에 대한 두 이론을 비판하여 시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증의 구조를 살펴보자.

1) 사건의 변화와 시간

맥타가트는 시간을 부정하는 첫 논증에서 B 이론의 시간을 거부한다. 그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하며, 변화와 시간을 서로 매우 밀접한 것으로 여긴다(§§ 309, 312 등).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의 B 이론 비판은 다음과 같은 두 전제에서 시작한다.

(1) 사건의 변화란 사건 E가 또 다른 사건 E*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B 이론은 E가 영속적이라고 주장한다.

(2)는 특정 사건 E가 일어나면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B 이론에 의하면,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는 사건은 이와는 다른 사건이 될 수 없다. 또 이 사건의 서술이 참이라면 영원히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B 이론의 사건 이해는 (1)과 같은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영속

www.kci.go.kr

적인 것은 변화하여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또한 한 번 참인 진술은 거짓인 진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맥타가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3) B 이론은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1)과 (2) 사이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B 이론과 변화를 양립시키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4) 사건 E는 사건 E*로 변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요소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한다(§ 310).

(4)에 의하면, 사건 E는 E*로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겪지 않을 경우 동일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된다. 변화는 E가 E*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가 변화 후에도 여전히 E라고 불릴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간직한다면, E와 E* 사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5) E와 E*가 몇 요소를 공유할지라도 변화를 알아챌 수 있으려면 결국 서로 다른 사건이어야 한다(§ 310).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여 E와 E*가 서로 다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본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변화가 부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5)는 B 이론이 함축하는 사건 E의 영속적 동일성이 변화와 양립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동일성과 변화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맥타가트는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변화 속에서의 동일성 유지를 거부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6) E가 E*가 된다면, 이때 E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10).
(7) (2)와 (6)은 갈등을 일으키므로, (3)은 참이다.

www.kci.go.kr

이상의 논증은 매우 단순하며 분명한 구조를 가진다. 영속적인 것은 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일상에서 쉽게 접하며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변화는 시제성과 시간의 흐름을 전제한다.[1] 그러므로 변화는 A 계열과 잘 어울린다. 맥타가트도 변화를 당연한 듯이 A 이론과 연결시킨다. 그는 "... 변화가 존재한다면, 이는 A 계열에서, 그리고 오직 A 계열에서만 찾아져야 한다"고 말하며 "실재의 A 계열이 없다면, 실재의 변화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한다(§ 311). 그는 다른 곳에서 변화와 시간이 A 계열을 필요로 함을 언급하기도 한다(§ 333). 결국 맥타가트의 첫 논증은 A 이론의 '변화'를 전제하며, 이윽고 B 이론이 가정하는 영속적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2) 무시제적인 '*이다*'(IS)

A 계열의 변화를 인정할 경우 맥타가트는 B 이론을 성공적으로 부정했다고 할 수 있다. B 이론의 시간이 모순으로 귀결되었으니 시간이 존재한다면 A 이론의 시간일 것이다(§ 325). 그렇다면 이제 A 이론의 시간을 부인할 차례이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받아들인다.

> (a) 각 시제는 다른 시제를 배제한다. 즉, "모든 사건은 [시제 중에] 하나 또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사건도 하나 이상일 수는 없다"(§ 329).

A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현재는 과거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미래도 현재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b) 한 사건은 세 시제를 모두 가질 수 있다(§ 329).

현재 시간 t에 일어난 현재 사건 M은 t 이전에는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t

1) A 이론의 시간의 흐름에 대한 견해는 선우환(2009, 58쪽) 참조.

www.kci.go.kr

이후에는 과거의 사건이 될 것이다(§ 329). 그러나 어떤 것이 현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나 과거의 것이라는 주장은 이상하게 들린다. (a)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29). 즉, (a)와 (b)는 갈등을 일으킨다.

맥타가트도 예상하듯이 A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다. "우리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동사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세 시제 모두에 공통된 형태는 없다"(§ 330). 시제에 관한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A 이론가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미래는 앞으로 현재일 수 있으면 된다. 또는 현재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사건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2] 즉, 한 사건이 세 시제를 순차적으로 가지는 것은 (a)와 모순이 아니다.

이와 같은 A 이론가들의 답변에 대응하기 위해 맥타가트는 B 이론에 호응하는 무시제적인 '*이다*'(IS)를 도입한다. 무시제적인 '*이다*'는 시제적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단지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서술용법상의 기능만을 가지는 계사(copula)이다. 시제가 탈색되었고, 무시제성이 B 이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어미는 명백히 B 계열이다. A 이론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사건 M이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미래의 사건이었다가, 현재의 사건이 되고, 이어서 과거의 사건이 된다고 하자. 이것이 무시제적인 어미에 의해 번역될 경우, 시제를 표현하는 동사의 형태, '있음'(is), '이었음'(has been), '일 것임'(will be)은 각각 다음과 같이 다시 쓰여야 한다(§ 331).

(c) "X가 Y였다"(X has been Y)는 과거 어느 순간에 "X는 Y*이다*"(X IS Y)를 의미한다.
(d) "X가 Y일 것이다"(X will be Y)는 미래 어느 순간에 "X가 Y*이다*"(X IS Y)를 의미한다.
(e) "X가 Y이다"(X is Y)는 현재 시점에서 "X가 Y*이다*"(X IS Y)를 의미한다.

2) 이는 후에 '시제를 심각하게 여기기'(taking tense seriously) 전략으로도 불린다(Markosian, Ned, 2013).

www.kci.go.kr

(c), (d), (e)에서 앞에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의 형태와 뒤에 나오는 무시제적인 형태(이탤릭과 대문자로 표현된 단지 서술용법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라. 이제 A 이론가들이 말하는 어느 현재 사건이 과거에는 미래였고 나중에는 과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B 이론의 용어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 (f) 우리가 현재 사건 M에 대해 말할 때, "이 사건은 현재 순간에 현재[*이*]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과거[*이*]며, 과거의 어느 순간에 미래[*이다*]"(§ 331). 즉, 무시제적 표현 속에서 어느 사건 M은 현재*이*면서, 과거*이*고, 또 동시에 미래*이다*.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A 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시제 어미들을 B 이론을 따라서 '어느 특정 순간'이라는 시간 색인을 가진 표현과 함께 무시제적인 '*이다*'(IS)로 바꾸어 말할 경우에, 그리고 (b)를 B 이론에 적용하여 미래의 사건이 동시에 과거 사건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 (g) "[현재 사건 M]이 과거인 미래 시점이 똑같이 [M]이 과거[*일*] 수 없는 과거의 순간[*이*]다"(§ 331).

현재 시점 t에 일어난 사건 M이 시간이 흘러 미래 시점 t*에서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자. 이때, 현재 시점 t에 일어난 사건 M을 무시제적 '*이다*'를 도입해 말하자면, 미래의 시점 t*에서 M은 과거의 사건*이다*. 그런데 미래 시점 t*에서 볼 때, t는 과거의 시점*이다*. 그러나 과거 시점에서 M은 과거의 사건*일* 수가 없고 오직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이다*(§ 331). 이제 이를 다시 A 이론의 용어로 바꿔 써보자. 미래 시점 t*에서 t는 과거의 시점이며, M은 과거의 사건이다. 따라서 애초에 현재 사건인 M은 동시에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다. (a)의 의하면 이는 모순이다. 그리고 이 모순은 앞서 순차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의 사건이 현재 사

www.kci.go.kr

건이 되고 다시 과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A 이론가들의 대답을 피해간다. B 이론의 어미로 번역했다가 다시 A 이론의 어미로 번역할 경우, 즉 시제 어미를 무시제적 어미로 번역했다가 이를 그대로 다시 시제 어미로 옮기면, 사건 M이 현재면서 동시에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증에서 볼 수 있듯이, 맥타가트는 교묘한 논리전개를 통해 애초에 A 이론의 시제를 포함하는 현재 사건을 B 계열의 무시제적 표현으로 바꿔 써서 모순을 도출해 낸다.

3) 맥타가트의 결론

맥타가트의 논증을 정리해보자. 먼저 그는 시간에 대한 B 이론을 부정한다. 이를 위해 A 계열의 개념인 변화를 당연하게 전제한다. B 이론은 변화를 받아들일 경우 모순을 함축한다. 따라서 '이전,' '이후,' '동시'와 같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333). 이어서 그는 A 이론의 시간을 논박하여 결국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 이론의 사건과 시간 이해를 무시제적 '*이다*'를 통해 번역을 하면 모순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 이론의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은 시제나 사건과 시간의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333). B 이론의 시간이 부인되고 이윽고 A 이론의 시간도 부인되므로 결국 어떠한 형태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시간 역설의 평가

맥타가트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 브로드의 비판

맥타가트의 논증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그가 취한 특정 이론이나 가정을 겨냥한다. 브로드(1938)의 반론이 한 예가 되겠다. 그는 '과거임(pastness), 현재임(presentness), 그리고 미래임'(futurity)이 양립불가능하

www.kci.go.kr

다는 맥타가트의 둘째 논증이 셋이 '동시에 또는 무시제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한다(77쪽). 따라서 순차적으로 세 시제가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맥타가트는 이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그의 둘째 논증에서 시간적 사건과 순간을 무시제적인 '*이다*'를 통해 번역했다. 그런데 브로드는 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브로드의 대응은 사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반론이기도 하다. 맥타가트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무시제적 '*이다*'를 도입하는데, 브로드는 이것이 무한 후퇴를 낳기 때문에 성공적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시제 표현을 제거하기 위해 "S는 지금 P이다"라는 문장을 "S는 t에 P를 가지고 t는 현재*이다*"라고 바꿔 써 보자. 이때, 시제를 가지는 "지금 ~이다"라는 표현은 제거되었지만 뒤에 't는 현재'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아있다(78쪽). 만일 이를 무시제적 표현으로 바꿔 쓴다면 또 다시 시제 표현이 들어가야 하므로 무한 후퇴가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브로드의 비판은 무시제적 용어를 통해 A 이론의 시간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이다. 어쩌면 두 이론 간의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며 불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맥타가트는 그러한 번역이 과연 불가능한지, 무한 후퇴가 반드시 나쁜 것인지를 반문할지 모른다. 물론 그가 브로드에게 제대로 된 답을 주기 위해서는 무한 후퇴가 큰 문제가 아니거나 어디에선가 멈출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하면서 맥타가트의 논증을 비판할 수 있다면, 굳이 누가 옳은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 사이더의 비판

여러 B 이론가의 반응 가운데 사이더(2001)를 살펴보자. 그는 B 이론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더(2001)는 "변화는 공간적 변화와 유사*하다*. 시간적 부분에 관한 불변하는 사실들에 의해서 변화가 *정말* 일어난다"고 말한다(214쪽). 맥타가트는 자신의 첫 논증에서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변화를 전제할 경우 미래 시간에는 거짓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의 영속성을 고수하는 B 이론과 양립할 수

www.kci.go.kr

없다고 주장한다. 내가 금요일마다 논문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나는 논문을 쓴다"는 문장은 토요일엔 거짓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더(2001)는 "내가 논문을 금요일에 쓴다"와 "내가 논문을 토요일에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영속적으로 참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내가 논문을 금요일에 쓰고 토요일에는 쓰지 않는다"는 문장도 영원히 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214쪽). 금요일과 토요일이라는 시간적 부분에 관한 영속적 사실이 합해지면 변화가 설명된다.[3)]

그런데 나의 논문 쓰는 습관이 변해서 이제 금요일은 쉬고 토요일에 쓴다고 하자. 영속적으로 참이어야 했던 문장은 이내 거짓이 된다. 물론 사이더는 논문 쓰는 습관의 변화를 다시 서술하여, 변화를 포함하는 모든 기술이 영속적으로 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답은 결국 무한후퇴에 이르게 된다.

사실, 변화에 대해서는 A 이론이 B 이론 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 속에서 사건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태피스트리 견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이 특정 관계 속에 미리 놓여있었다면, 변화를 통해 새로 발생한 사건은 진정한 변화를 겪은 것 같지 않다.[4)] 여기서는 A 이론과 B 이론 중 어느 이론이 더 변화를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피하고자 한다. 특정 이론을 전제하지 않고도 맥타가트의 논증의 흠을 찾아낼 수 있다면, 굳이 이와 같은 추가적인 논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한 익명의 심사자는 여기서 사건과 사실/사태를 구분해야 하며 사이더의 의도는 사태는 변화해도 사건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마도 이는 사이더가 사건 자체는 영속적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B 이론의 관점에서 사실/사태의 변화를 수용하여 A 이론의 공격에 응대하는 것이라는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사실 사이더의 논증의 이해에 대한 심사자와 필자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 같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사이더(2001)가 "포커 게임에 대한 사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포커 게임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맥타가트의 B 이론 비판에 대응하여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사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214쪽).

4) 이와 일관적으로 김한승(2004)과 한우진(2009) 등도 B 이론보다는 A 이론이 변화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준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3) 현재론자의 반론

이제 동시대 A 이론가의 반응을 검토해보자. 김한승(2004)은 맥타가트의 둘째 논증에 대해 A 이론의 관점에서 가능한 대답들을 검토한다. A 이론가는 시제적 표현을 무시제적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5] 즉, (c), (d), (e)와 같은 번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 A 이론가들이 B 이론의 번역을 선호할 이유는 없다. 또한 이러한 번역을 받아들이더라도 (g)와 같은 모순을 함축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6]

비글로우(Biglow, J., 1991)나 힌치클리프(Hinchcliff, M., 1996), 마코시안(Markosian, N., 2002) 등의 A 이론가들은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며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재론을 고수한다. 그런데 현재론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앞서 (f)를 설명할 때, 핵심이었던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자.

(f*) A 이론의 현재 사건 M을 무시제적 '*이다*'를 도입해 말하자면, 미래의 시점 t*에서는 과거의 사건*일* 것이다.

(f*)에서 볼 수 있듯,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을 미래 시점 t*에서 과거 사건*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시점 간의 관계, 즉 B 계열이 개입한다. 현재 사건 M을 같은 식으로 비슷하게 바꾸어 말하자면, 과거 시점 t**에서 미래의 사건*일* 것으로 이해된다. 즉 시제를 특정 시점들의 관계에 대한 B 이론의 용어로 번역했을 경우, (g)와 같은 모순이 도출된다.

비글로우(1991)나 마코시안(2002) 등에서 볼 수 있듯, 현재론자들은 과거나 미래 시점을 일종의 가능 세계로 본다.[7] 현재론자들에 의하면 이미

5) 김한승 (2004), 108-109쪽.
6) 김한승 (2004), 109-110쪽.
7) 마코시안(2002)은 우리가 과거의 존재자이며 따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참인 명제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이다"는 문장은 (어느 x에 대하여)(x는 소크라테스이다 & x는 철학자이다)라고 존재 양화된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였다"는 문장은 앞서 양화된 문장 앞에 'P'라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양상기호를 쓰면 될 것이다. 즉, 우리는 "P(어느 x

www.kci.go.kr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직 않은 미래의 사건들이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할 수 있었던, 또는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김한승(2004)이 정리하듯, "현재 사건 M이 미래 시점 t에서 과거이다"는 "현재 사건 M이 앞으로는 과거의 사건일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A 이론의 용어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109쪽). 이와 같이 현재 사건과 과거나 미래 같은 다른 시점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떠한 모순을 산출하지 않는다. 현재론자들은 굳이 (f)와 같이 B 이론의 용어로 시제를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 이론가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B 이론의 영향을 받은 A 이론의 한 변종은 오직 현재만이 시간성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는 현재와의 관계 속에 규정된다고도 본다.[8] (이와 같은 이론은 현재론과 유사하지만 시점의 관계성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재론과는 다른 견해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현재의 사건은 동시에 미래의 사건일 수가 없다. 따라서 모순의 회피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도는 맥타가트의 논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보임과 동시에 A 이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매우 유익한 작업이다. 그러나 왜 A 이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정 이론이 전제 되어야만 맥타가트의 시간 역설이 논박된다면, 그 이론은 어떻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되도록 회피하자.

4) 일관성의 결여

필자는 맥타가트가 자신의 논증에 특정 이론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가정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여러 다양한 비판들에 공감한다. 왜 B 이론이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지를 묻거나 A 이론의 다른 형태는 왜 불가능한지를 묻는 비판들을 직접 접했다면, 맥타가트는 자신이 당연하게

에 대해서)(x는 소크라테스이다 & x는 철학자이다)"를 얻으며 이 문장의 참과 거짓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때 'P'는 양상논리학의 기호인 상자나 다이아몬드와 매우 유사하다.

8) 김한승 (2004), 109-110쪽.

www.kci.go.kr

여긴 가정들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정들을 비판하기 위해 다시 특정 이론을 끌어들이는 것 역시 그 특정 이론과 가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되받을 수 있다. 맥타가트의 논증이 어느 가정을 전제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그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왜 그와 다른 가정을 도입해야만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맥타가트의 두 논증에서 각각 검토되는 A 이론과 B 이론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의 논증을 비판할 수 있다. 맥타가트의 논증의 전체 구조는 귀류법에 의한 논증으로 읽히곤 해 왔다. 그의 첫 논증은 B 이론의 시간 개념이 변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가 직관적으로 포기될 수 없는 것이므로, B 이론의 시간 개념이 부정된다. 이로부터 시간이 존재한다면, A 이론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중간 결론이 도출된다. 둘째 논증은 A 이론의 시간 개념이 B 이론의 언어로 번역될 경우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증은 결국 시간이 어느 이론 하에서도 존재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사실 맥타가트는 주로 A 이론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래서 그의 B 이론을 부정하는 첫 논증과 A 이론을 부정하는 둘째 논증 사이에는 접점이 있는 듯하다. 그는 "A 계열 없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 계열이 없을 때에는 B 계열도 존재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312). 그래서 럭스(Loux, M. 2006)[9]는 맥타가트의 첫 논증의 결론을 "B-계열이 A-계열을 전제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207쪽). 이는 A 계열 없이 B 계열이 없으며 A 이론의 변화를 받아들일 경우 B 이론의 시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A 계열이라는 필자의 이해와 큰 차이가 없다.)

맥타가트의 전체 논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9) 번역된 『형이상학 강의』(2010, 아카넷)에서 그의 이름(Loux)은 '루'라고 표기되지만, 이메일을 통해 저자가 직접 알려준 발음에 가장 가까운 표기는 '럭스'이다.

www.kci.go.kr

(ㄱ) B 이론은 변화와 모순을 이루기 때문에 B 이론의 시간은 부인된다.
(ㄴ) 따라서 시간이 존재한다면 A 이론의 시간이다.
(ㄷ) A 이론은 (a)와 (b)의 모순을 함축하므로 A 이론의 시간도 부인된다.

이상의 논증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첫 논증의 결론은 B 이론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이 변화를 겪는다는 A 이론의 함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B 이론을 비판한다. 이때 부정되는 것은 태피스트리 견해인 B 이론의 시간 개념이다. 그런데 맥타가트는 둘째 논증에서 B 이론을 바탕으로 A 이론을 공격한다. A 이론의 시제 어미들이 무시제적 '*이다*'에 의한 번역을 거쳐 모순이 도출된다. 번역 과정에서 A 이론의 시제적 어미들은 제거되었으며 무시제적인 B 계열의 어미만이 남았다. 그런데 B 이론의 시간 개념은 첫 논증에서 이미 거부되었다. 무시제적 시간 이론이 부정되었는데, 무시제적인 어미가 도입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이미 모순으로 거부된 이론에 속하는 표현들이 A 이론의 시제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런데 B 계열의 용어를 쓰는 것이 B 이론을 긍정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가? 사건 간의 선후 관계만이 실재한다는 것이 B 이론의 주장일 뿐, 무시제적 표현이 B 이론을 반드시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는 없는가? 그렇다면 B 이론이 거부되었다고 무시제적 용어의 사용이 부당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보일 수 있다. 물론 A 이론을 받아들인 후에도 (즉 B 이론을 부인한 후에도) B 계열의 표현을 쓰는 것은 가능하다. 4-3)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재론은 B 이론의 '이전,' '이후' 등을 자기 이론의 틀을 유지하며 이용할 수 있다. A 이론가가 무시제적 어미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맥타가트가 무시제적 '*이다*'를 도입한 의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c)~(e)를 보면 해당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선후 관계를 따지기에 적합한 형태로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가 제거되어 있다. 무시제적인 어미를 선호하는 이론은 당연히 B 이론이다. 맥타가트가 시

www.kci.go.kr

제적 어미를 굳이 무시제적 어미로 바꿔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사건의 변화를 인정할 경우에만 (a)와 (b)는 모순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맥타가트가 그의 첫 논증에서 밝혔듯이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변화는 A 이론, 즉 시제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무시제적 '*이다*'의 도입은 (맥타가트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논증의 전체 맥락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무시제적 어미의 도입을 통해 시제가 제거되고,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가 부인되므로, (a)와 (b)가 모순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A 이론의 핵심 개념인 변화를 부인하기 위해 도입된 무시제적 어미를 B 이론과 별개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맥타가트가 (c)~(e)에서 무시제적 어미를 통한 번역을 시도했을 때, 브로드도 비판했듯이 여전히 '과거 어느 순간에,' '미래 어느 순간에,' '현재 시점에서'와 같은 용어들은 남게 된다. 더군다나 맥타가트는 무시제적 어미를 도입한 후, 이를 다시 시제적 어미를 통한 번역으로 모순을 도출해 낸다. 그렇다면 무시제적 어미를 도입했다고 그가 B 이론이 참임을 가정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결국 무시제적인 어미의 도입을 통해 (c)~(e)는 "X 가 과거 어느 순간에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현재 시점에도 Y*이다*"라고 번역된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제 표현이 여전히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맥타가트가 시제를 가지는 A 이론이 모순임을 드러내기 위해 남아 있던 A 이론의 잔재일지 모른다. 또한 B 이론은 굳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표현들을 부인할 필요가 없으며 태피스트리 위의 공간적 좌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그만이다. 그의 번역이 함축하는 결정적인 대목은 시제가 존재한다면, 무시제적 어미를 도입할 경우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한 사건이 세 시점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각 시제가 다른 시제를 배제한다는 (a)와 모순을 이룬다는 것이다. 어미에서 시제성이 제거되었으므로, 더 이상 한 사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차적으로 미래, 현재, 과거라는 시제를 가질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때, 맥타가트가 둘째 논증에서 '과거, 미래 어느 순간에,' 또는 '현재 시점에

www.kci.go.kr

서’와 같은 시제 표현을 함께 쓴다는 사실이 그가 B 계열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맥타가트가 무시제적 어미를 도입하는 순간 그가 일단 부인했던 B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믿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둘째 논증이 전제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B 이론의 핵심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필자의 이해는 ‘무시제적 시간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B 이론의 근본 주장이 바로 무시제성에 있다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만일 B 이론이 모순을 함축한다면, B 이론의 시간관을 반영하는 B 계열의 어미를 쓸 수 있는가? 3-2)에서 언급되었듯이, A 이론가들은 우리 언어의 동사 어미의 형태에서 시제의 근거를 찾곤 한다. 시제 어미를 쓴다는 것이 바로 시제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무시제적 어미의 도입은 매우 심각한 B 이론의 개입을 의미한다. 단지 B 계열의 용어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B 이론의 핵심인 무시제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어미를 사용해 A 이론을 비판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맥타가트 이후 일군의 A 이론가들은 B 이론을 거부하면서도 B 계열의 요소를 차용하기도 한다. 이때 A 이론을 유지하면서도 A 이론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A 이론마저 부인한 맥타가트가 이와 유사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 그가 시간에 대한 두 이론을 대비시켜 정의하고 각각을 비판했을 때, 두 이론 간의 또는 두 계열의 용어 간의 호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B 이론이 A 이론을 전제한다는 것은 B 이론의 시간이 존재한다면 A 계열의 변화가 먼저 성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B 이론과 A 이론이 상호 호환된다는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시제성과 무시제성은 서로 호환되기 어렵다. 맥타가트는 B 이론을 비판한 첫 논증에서 A 이론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고 말하며 A 이론이 변화의 필요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309-312.) (그는 때로 변화가 A 이론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첫 논증과 병렬적으로 둘째 논증을 이해한다면, A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B 이론의 용어들은 B 이론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즉, 무시제적 어미는 무시제적 시간 이론인 B 이론에 의해 함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B 계열의 무시제적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B 이론을 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둘째 논증은 A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이미 거부되었던 B 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동원한 셈이 된다.[10)]

사실 맥타가트는 브로드의 불평처럼 A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왜 무시제적 어미로 바꿔 써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번역이 그 자체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맥타가트의 둘째 논증에서 발견되는 최대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는 그가 A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B 계열의 어미들을 사용할 때 암묵적으로 B 이론이 참임을 가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적어도 필자처럼 이해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분명하다.

5) 양도 논법

맥타가트의 논증은 양도 논법으로도 재구성이 될 수 있다. 이때 그의

10) 어느 익명의 심사자는 맥타가트가 은밀히 B 이론을 동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심사자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A 이론의 용어들은 사건들의 특성들(characteristic)을 표현할 뿐이며, 이러한 특성은 관계나 성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타가트는 이 특성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대해 논리적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맥타가트가 의도적으로 B 이론을 개입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사자의 말처럼 중립적인 표현을 통해 A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시제적인 어미들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무시제적인 어미들이 A 이론과 B 이론에 모두 중립적인지는 회의스럽다. 시제가 제거된 순간 A 이론의 시제 표현들은 무시제적 표현이 된다. 그리고 무시제적 표현들은 명백히 B 계열이다. 시제 어미를 계사로 보자는 것이 바로 B 이론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자가 지적한 사건의 특성으로서 '관계'는 (심사자의 압축적인 설명으로 인해 필자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지만) A 이론보다는 오히려 B 이론에 친화적인 것 같다. 시제 용어들이 사건들의 관계를 표현한다면, '이전,' '이후,' '동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A 이론은 특별히 관계를 사건이나 시제 이해에 요구하지 않지만, B 이론은 시제를 가진 사건들을 태피스트리 위 좌표 사이의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www.kci.go.kr

논증이 함축하는 문제점이 보다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재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숨은 전제들의 도입이 유용하다.

(가-1) 시간이 존재한다. (T)
(가-2) 시간이 존재한다면, A 이론의 시간이거나 B 이론의 시간이다. (T → (A v B))[11]

(가-1)와 (가-2)는 시간의 실재성에 관한 두 이론이 있다는 당연한 가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시간에 대한 두 이론의 정의를 위해서는 시간의 존재는 당연한 가정이 된다(가-1). 그리고 두 이론은 시간의 실재를 전제로 성립한다(가-2). 맥타가트가 시간에 관한 두 이론을 말할 때, 이 두 명제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전제되어 있다. 이로부터 다음이 따라 나온다.

(가-3) A 이론의 시간이 존재하거나 B 이론의 시간이 존재한다. (A v B)

필자는 애초에 (가-3)을 배타적 선언으로 이해했으나 양도 논법을 위한 선언이 반드시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포괄적 선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맥타가트는 (가-3)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시간에 대한 두 이론을 곳곳에서 언급할 때 (가-3)이 참임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다(§§ 305, 307 등). 그에 따르면, A 이론의 정당성은 우리가 사건들을 현재와 같은 시제와 함께 지각하거나 기억한다는 점에서 찾아 진다(§ 307). 반면에 시간에 대한 지각은 주관적이고 마음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실재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실재한다고 지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B 이론이 선호될 수 있다(§ 308). 이렇게 시간에 대한 지각과 이에 바탕을 둔 시간의 실재성의 정당화에 관해서 두 이론은 분명히 상이한 견해를 가지며, 각 이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직관도 다르다. 또

11) 필자는 애초에 (가-2)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익명의 심사자에 의해 제안이 되었다. (가-2)만 놓고 보면, 시간의 실재성이 부인되는 것과 후건을 이루는 A 이론의 시간 또는 B 이론의 시간의 실재성이 일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1)이 추가되었다.

www.kci.go.kr

한 맥타가트는 시간에 관한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만일 제 3 의 이론이나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는 시간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논증을 주었을 것이다. 맥타가트 이후 두 이론이 발전하면서 혼성적인 형태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그가 각 이론을 정의할 때 이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 익명의 심사자는 필자가 배타적 선언으로 해석했던 (가-3)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며, 맥타가트가 A 이론이 없으면 B 이론도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이론이 B 이론의 필요조건이며, 두 이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3)이 굳이 배타적 선언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두 이론은 엄연히 서로 구분되는 이론이다. 그는 첫 논증에서 B 이론은 시간의 실재성에 바탕을 두는데, 시간의 실재성을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변화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A 이론의 개념인 변화를 인정할 경우 B 이론은 결국 모순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B 이론은 A 계열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겠다.[12] 그러나 두 이론이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에 대해서 두 이론은 모두 실재론이지만, 시간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르다. 시제에 대해서도 하나는 실재론이지만 다른 이론은 반 실재론이다. 만일 두 이론이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B 이론은 결국 시제에 대한 반 실재론일 수 없으며, A 이론과 B 이론의 엄격한 구분도 무의미해진다.

이제 맥타가트의 첫 논증은 (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나) B 이론의 시간은 모순을 함축한다. (B → F)

(나)는 B 이론의 시간을 가정하면, 모순(F)이 도출된다는 귀류법의 구조를 가진다. 이제 남는 것은 A 이론의 시간이다. 마침 B 이론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A 계열의 변화가 동원되었다. 그런데 맥타가트가 A 이론의 시제 어미들을 B 계열에 속하는 무시제적 어미로 바꿔 쓸 경우, 과거, 현

12) 럭스(2007), 207-208쪽 참고.

www.kci.go.kr

재, 미래가 공존하는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A 계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맥타가트의 둘째 논증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 A 이론의 시간도 모순을 함축한다. (A → F)

(가-3), (나), (다)로부터 양도 논법에 의해 도출되는 것은 바로 모순이다. 따라서 시간의 실재성에 관한 두 이론으로 구성된 선언을 부인(−(A v B))하여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T)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의 논증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 직선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던 맥타가트의 논증은 매우 상식적인 숨은 전제와 가정들을 더함에 의해 양도 논법을 활용하는 논증으로 재구성이 될 수 있다. 물론 그의 논증을 굳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필자는 양도 논법이 맥타가트의 논증을 정확히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B 이론을 거부하고 이어 A 이론을 비판하여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흐름상 (가-1)~(가-3)은 상식적인 숨은 전제이고, 이를 거부할 분명한 이유도 없다. 그리고 양도 논법에 의한 재구성은 앞 절에서 논의되었던 비일관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며 그 이상의 문제점도 드러낸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렇게 재구성된 맥타가트의 논증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하지만 건전성은 의심가능하다. 그의 의도를 고려할 경우 A 이론과 B 이론이 서로 구분되는 두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므로, 우리는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 절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맥타가트는 한 부분 논증에서 어느 이론을 전제할 경우 다른 부분 논증에서도 일관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 A 계열을 받아들여 B 이론을 부인한 후, 다음 논증에서 B 계열을 통해 A 이론을 부인하는 맥타가트의 논증은 비일관적이다. A 이론가는 맥타가트의 첫 논증을 받아들이지만 브로드처럼 무시제적 표현이 도입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B 이론가도 무시제적 표현의 도입을 환영하지만, 맥타가트의 첫 논증을 거부할 것이다.

맥타가트의 전체 논증이 잘못되었음을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상의

www.kci.go.kr

비일관성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각 부분 논증을 보다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엄밀히 본다면 첫 논증의 결론은 시간 개념 자체가 모순이라기보다는 B 이론의 시간 개념이 모순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논증의 결론은 A 이론의 시간이 모순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그가 B 이론을 비판하면서 A 이론의 가정을 도입하고 A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B 계열의 용어를 사용할 때, 두 이론이 모두 그 자체로 모순을 함축함을 보인 것은 아니다. (나)와 (다)에서 도출된 모순은 '시간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상대 이론의 가정을 도입할 경우 각 이론의 시간 개념이 모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한다.

(나-1) A 이론의 가정을 도입한다면, B 이론의 시간은 없다.
(A → −B)

엄밀히 말해 A 이론의 가정을 도입하는 것과 A 이론의 시간을 긍정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맥타가트가 변화를 A 이론의 근본 가정으로 보았다는 앞서의 논의를 반영하면 (나-1)과 같은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의 둘째 논증의 결론도 이와 병렬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A 이론의 시간은 무시제적 번역을 허용할 경우 (a)와 (b)의 모순을 낳는다. 따라서 둘째 논증의 결론도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1) B 이론의 가정을 도입한다면, A 이론의 시간은 없다.
(B → −A)

(다-1)도 무시제성이 B 이론의 근본 가정이라는 맥타가트의 논의에 바탕을 둔다.

결국 양도 논법을 (가-3), (나-1), (다-1)에 적용하여 도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선언이다.

www.kci.go.kr

(마) B 이론의 시간이 없거나 A 이론의 시간이 없다.
(−B ∨ −A)

(마)는 선언이므로, 여기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연언이다.

(바) B 이론의 시간이 없으며, A 이론의 시간도 없다.
(−B & −A)

(마)와 같은 선언의 경우 A 이론을 받아들여 B 이론의 시간 개념을 비판하면 시간은 부인되지 않는다. 4-3)에서 언급된 현재론자들의 주장이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4-2)에서 살펴보았던 사이더의 대응처럼 B 이론을 통해 변화를 설명하거나, B 이론을 받아들여 A 이론을 비판할 경우에도 (마)는 여전히 참이다. A 이론가는 일단 A 이론을 통해 B 이론을 비판하는 맥타가트의 첫 논증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어서 B 계열의 무시제적인 어미를 사용할 경우에 A 이론이 모순을 함축한다는 둘째 논증을 조건적 논증으로 이해하면 된다. 조건문이 참이라고 해서 전건의 참이 주장되는 것은 아니다. A 이론가는 이 조건적 논증의 타당성을 인정하고서, 단지 B 이론을 거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양도 논법의 결론인 (마)의 첫 선언지를 참이라고 하고 둘째 선언지를 거짓이라고 하면 된다. B 이론가도 이와 병렬적인 논증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맥타가트는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 (마)가 아닌 (바)를 증명해야 했다. (가-3), (나-1), (다-1)을 통해 (바)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가-3)의 선언을 이루는 두 이론이 모두 참이어야만 하나, 이는 보장된 바가 아니며, 시제성과 무시제성은 양립하기 어렵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시간의 역설을

www.kci.go.kr

드러내는 맥타가트의 논증을 귀류법에 의해 그 흐름 그대로 살펴보면 비일관성의 문제가 발견된다. 둘째, 시간 실재론에 관한 두 이론으로 구성된 선언을 그 안에 포함하는, 숨은 전제들을 더하여 맥타가트의 논증을 양도 논법에 의한 것으로 재구성했을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두 세부 논증의 결론이 각각 시간의 부정이라고 본다면, 그의 논증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이때 그의 첫 부분 논증의 가정과 둘째 논증의 세부 가정은 서로 다른 계열에 기초하므로 어느 하나는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따라서 비일관성이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두 세부 논증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그의 논증이 아예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필자의 제안은 매우 간단해서 지금까지 이런 비판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그래서 필자의 지적이 타당한 것인지, 무엇인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오기도 했다. 아마도 여러 형이상학자들이 맥타가트의 시간 역설을 대할 때 A 이론과 B 이론을 중 하나를 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불리한 부분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 같다. 그래서 A 이론가나 B 이론가 모두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소재로 삼아온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논증은 A 이론과 B 이론 중 어느 하나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시간 실재론자의 관점에서 맥타가트의 시간 역설에 대해 간단하고도 중립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한승 (2003),「맥타가트의 시간 역설에 관한 재고찰」,『철학』81.

마이클 루 (2010), 『형이상학 강의』, 박제철 옮김, 아카넷.

선우환 (2011),「시간에 대한 태도와 무시제적 시간 이론: 프라이어의 퍼즐을 중심으로」,『철학연구』92.

한우진 (2009),「영원성과 현재성은 하느님 안에서 양립가능한가?」,『가톨릭철학』12.

Bigelow, John (1991), "Worlds Enough for Time," *No s* 25: 1-19.

Broad, C. D. (1938), "McTaggart's Arguments against the Reality of Time," reprinted in van Inwagen, Peter and Zimmerman, Dean eds., (1998), *Metaphysics: The Big Questions.* Blackwell.

Hinchliff, Mark, "The Puzzle of Change," in Tomberlin, James ed., (1996) *Philosophical Perspectives 10, Metaphysics,* Blackwell.

Loux, Michael (2007), *Metaphysic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Markosian, Ned (2002), "A Defense of Presentism," in Zimmerman, Dean ed., (2004), *Oxford Studies in Metaphysics,* volume 1,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13), "Time,"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Zalta, Edward. ed.,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3/entries/time/.

McTaggart, J. M. E. (1927), "Time: an Excerpt from The Nature of Existence," reprinted in van Inwagen, Peter and Zimmerman, Dean, eds., (1998), *Metaphysics: The Big Questions,* Blackwell.

Prior, Arthur (1970), "The Notion of the Present," reprinted in van Inwagen, Peter and Zimmerman, Dean, eds., (1998), *Metaphysics: The Big Question,* Blackwell.

_____, "Some Free Thinking about Time," reprinted in van Inwagen, Peter and Zimmerman, Dean eds., (1998), *Metaphysics: The Big Question,* Blackwell.

Sider, Ted (2001), *Four Dimension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www.kci.go.kr

Troubles with McTaggart's Paradox of Time

Han, Woo-Jin (Duksung Women's Univ.)

McTaggart asserts that time is unreal by denying the two theories of time. A-Theory holds that tense such as present, past or future is real and present events can be past events in the future. B-Theory maintains that tense is unreal, and only relations between events such as 'before,' 'after' or 'simultaneous' exist. I claim that McTaggart's argument to deny time is inconsistent. He first drives B-theory to a contradiction by introducing 'change' which is a key notion of A-Theory, and then criticizes A-Theory. In his argument to show that A-Theory entails a contradiction, he utilizes tenseless terms belonging to B-Theory, which he already denied. However, this is inconsistent. When we reconstruct his argument into a dilemma,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s still found. Furthermore, the whole sequence of his argument is revealed to be invalid.

Key words: McTaggart, Time, Tense, A-Theory, B-Theory

한우진 e-mail: whan@duksung.ac.kr

투 고 일	2013년 10월 14일
심 사 일	2013년 11월 01일
게재확정	2013년 11월 15일

www.kci.go.kr